

# 조급함은 또다른愚를 부른다

필자는 지난 1월 하순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와 동경을 여행하고 4~5개처의 기관을 방문했다. 환상선전철(아마노테센)의 하마마츠역에 있는 무역센터 7층에 재단법인 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가 위치해 있다.

약속시간이 11시 30분이라 여유가 좀 있었지만 10시 30분경에 미리 와서 최근에 간행된 자료들을 입수하여 읽어내려갔다.

이 센터의 이사장은 문부성 학술정보센터 소장으로 있는 이노세 히로시씨이고, 전무이사는 야마다 타카시씨다. 몇년전에 와타나베씨가 전무이사였던 시절에 두어번 방문해서 교분을 터두었는데 사람이 바뀌고부터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

팜플렛을 읽어보니까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개요가 쓰여져 있었는데 주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촉진 사업
-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 데이터베이스 클리어링 사업
-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계몽보급 사업
-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제교류 사업
- 기타 본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여기서는 6가지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조회원으로서 106개 기업이 참조하고 있으며,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필자의

눈을 끈 것은 6번째 사업내용 중에서 ISO/TC-46(문헌정보) 국내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날 방문면담을 하기로 한 오쿠즈미 진흥부장은 이 위원회의 간사역을 맡고 있었다.

오쿠즈미씨는 이 날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이었으나 인터넷상으로는 이미 통성명을 한 사이로, 한번 신세진 일도 있었다.

이 사람은 1년전쯤 ISO 12083(Electronic Manuscript Preparation and Markup)의 일본어판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즉, 전자원고작성법의 일본어 표준원안을 작성한 팀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단도직입적인 인사가 좀 쑥스러워 일본내의 ISO/TC46의 창시자인 나이트교수(학술정보센터)에게 소개를 부탁해 이날 11시30분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다.

자료에 몰두하다 약속시간이 가까워 오는 줄도 몰랐는데 오쿠즈미씨가 내려와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몇층인가에 데리고 가서 야마다전무와 츠클바대학의 마츠모토 교수(ISO/TC46 일본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 여성)와 만나서 한일간의 ISO/TC46 국내활동의 협력을 다짐했으며, 5월에 런던에서 열리는 TC46 총회에서 함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자는데 합의하고 내려와서 오찬장으로 갔다. 오찬을 하면서 일본에서의 TC46활동 내용에 대해 서로가 인터넷으로 정보교류를 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다음 약속장소로 옮기면서 최신희 뉴스레터를 읽어봤다. 여기서는 매년 연례행사로 해외 데이터베이스 시찰단 사업을 한번도 걸르지 않고 계속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22명의 시찰단을 구성하여 방문했던 결과를 보고서로 수록하고 있었다. 방문 기관은 아래와 같았다.

- ONLINE WORLD, Washington D.C.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Washington D.C.
- Washington Post, Washington D.C.
- DRI, Boston
- Market Analysis and Information Database, Inc., New York
- TIME WARNER, New York
- Knight-Ridder, San Francisco
- Verisign, San Francisco
- Xing Technology, San Francisco

이 자료를 읽으면서 20년전에 해외 데이터뱅크 시찰단을 조직하여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격세지감을 느꼈다. DPC 일본에서의 명물은 역시 '데이터베이스 대장총람'이다.

제작된 현재의 일본에서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총수는 5천종인데 비해, 일본제 데이터가 3,300여종이나 된다. 10여년전의 해외의존도 75%에 비해서 지금은 해외의존도가 60%로 줄어들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마지막으로 무심코 집어온 팜플렛 한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앗차...' 하고 후회했다. 내일이면 귀국해야 하는데 바로 그 내일, 아주 중요한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루를 늦추는 것도 생각했지만, 호텔을 하루더 연기하는 절차도 항공회사에 취소연락도 모두가 귀찮은 일이라서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그 팜플렛은 다름 아닌 '파일럿 전자도서관 포럼'의 안내문이었다.

모든 정보가 전자화되어 누구든 쉽게 지구규모

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자도서관 시스템은 분산적으로 수집 축적되는 지적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자유로히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거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프로젝트는 2개의 서브프로젝트로 되어 있다. 하나는 전자도서관실 증설협 프로젝트다. 작은 도서관 하나의 전장서에 해당하는 일천만 페이지의 문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본격적인 전자도서관의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른 하나는 종합목록 프로젝트이다. 전국 27개 대규모 공공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730만건의 서지데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제1부: 파일럿 전자도서관에의 초대...시범
- 제2부: 파일럿 전자도서관의 이용경험...
- 제3부: 파일럿 전자도서관 평가 및 전자도서관의 전망...

불과 2시간 남짓의 짧은 방문시간이었지만 만난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서 일본의 짜임새 있는 발전을 엿보았다.

우리 수준을 이만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먼 훗날에 가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성급하게 채산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상당한 액수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금이 투입됐지만 얼마나 채산성이 맞고 있는가.

데이터베이스는 꼬끼리 정도가 아니라 공룡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모두 장님이다. 한두사람이 만져본 꼬끼리 코, 꼬리, 다리만으로 전체를 다뤄 버리는 우(遇)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DPC**